

“예술 감독 중심 시스템 변화 필요 재단이 주도권 갖고 행사 큰 그림”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

출품작 광주콘텐츠 자산으로 남게
역사·참여 작가 등 아카이빙 시도
지역·시민과 연계 방안 더 고민
예술감독 선임은 내달까지 마무리

“광주비엔날레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행사입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시작할 때 어린 큐레이터였는데 지난 2012년에는 예술감독으로도 참여하면서 비엔날레가 점점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을 넘기면서 힘든 상황도 있었던 비엔날레가 또 다른 발전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방안 등을 차분히 만들 계획입니다.”

13일 선임된 김선정(52·사진)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는 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과 소통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비엔날레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특히 2년마다 열리는 전시회가 예술감독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조만간 운영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논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술감독이 선임되고 전시 방향을 제안하면 재단이 감독을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했어. 그러다 보니 재단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술감독에게 자율권을 주되, 재단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행사 전체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5개월 넘게 공석이 되면서 지연됐던 예술감독 선임 문제는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이 예술감독 선임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리서치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견임을 전제로, 김 대표이사는 기존 비엔날레가 진행해온 1인 감독 체제보다는 공동 감독제에 무게중심을 뒀다.

김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등이 광주의 컬렉션이 돼 자산으로 남아야 한다”며 “도심에 자리한 폴리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교육과 아카이빙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비엔날레가 어떤 것인지 많이 듣고 소통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술감독이 선임된 후 전시 준비가 시작되고 나서야 작가들과의 교류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작가들과의 연계 방안을 찾고 작가 지망생, 학생, 큐레이터 등 지역의 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데 현재 광주 비엔날레는 그 점에서 다소 아쉽습니다. 또 광주비엔날레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술인들과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엔날레가 가진 역사, 참여작가 자료 등 아카이빙을 체계적으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김 대표이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비엔날레도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차별화를 위해서 강조되는 게 바로 지역성입니다. 광주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더 지역과 밀착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는 참여작가들이 작품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을 어렵다고 하는데, 단순히 쉬운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작품이라도 그런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변화를 보이면 사람들이 현대 미술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숙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작업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팀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비엔날레는 체계화된 조직에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광주 비엔날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기업 스폰 등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국비 삭감 등과 관련해 ‘일몰제’가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관 개정을 위해 김 대표이사는 기존의 이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가져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가 됐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계는 문화적 소양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한 기업 후원 등 경영 마인드도 함께 갖춘 수장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김 대표이사가 큐레이터 출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날 인터뷰에서 기금 확보와 후원, 문광부의 ‘일몰제’에 따른 국비 감소 등 ‘경영’ 쪽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아 아쉬움을 줬다.

/글=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악·버스킹·거리극...신명난 5·18광장

내일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연과 아마추어·동아리 단체의 무대가 어우러지는 ‘광주형 프린지’가 펼쳐진다.

이번 주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거리예술극 ‘Who is fastest?’(Together팀), ‘그들이 나타났다’(Extra팀), ‘컬러복싱(Other팀)’과 거리무용극, ‘꽃잎’(Step-up팀), ‘빛’(Dance-up팀) 등 5개 예술단체가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6월 처음 선보인 이 공연은 광주 프린지학교에서 배출된 거리예술작품이다.

이날 첫 야외공연은 선보이는 아마추어 공연단체들도 있다. ‘요들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음악여행(요들엔젤스합창단)’,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 음악교실(통기타양상블 뿔 꽃)’, ‘클래식 기타 연주(빛고을 클래식 기타 합주단)’이다. 이들 단체는 요들과 기타를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5·18 민주광장 종각 인근 잔디밭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5월 ‘2017 오월창작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파이카’와 ‘2014 오월창작가요제’ 동상 수상자 이진우씨도 참여

할 예정이다.

7월의 자세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fringefestiva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판소리+연극

‘퓨전 창극’ 공연

전통문화관 내일 서석당

판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형태를 버무린 새로운 형태의 공연 ‘퓨전 창극’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대표 박해라)를 초청해 ‘최고의 선물 판소리’를 선보인다.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는 전통예술인 판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과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창작하는 공연예술단체로 이날 공연은 박해라, 김민지, 박정진, 백희정, 소지원, 장해란, 주희라 씨가 출연한다.



또한 이번 공연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가야금병창과 퓨전국악으로 엮어 공연의 문을 열고, 이어 판소리를 새로운 형태의 극음악인 창극으로 꾸며 소개한다.

방자가 전하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야기에 해석적인 요소를 가미한 ‘춘

향전’,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 간을 구하려 간 별주부가 토끼를 만나 벌이는 험프닝을 담은 ‘별주부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황후가 된 심정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맹인 잔치를 여는 감격적인 대목으로 이날 공연을 마무리한다. 문의 062-232-1595. /박성천기자 skypark@

하정웅미술관 내일 조한혜정 교수 강좌

‘죽음의 한 연구’ 작가 박상룡 별세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인문학 강좌에서 강의한다.

14일 오후 7시 하정웅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조 교수는 ‘전환의 시대, 어떻게 살아갈까?’를 주제로 강의한다. 조 교수는 문화인류학자의 시선에서 경제위기, 인구과잉, 핵문제, 환경오염, 민주주의의 위기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화인류학자인 조 교수는 청소년직업체험 센터 ‘하자 센터’ 설립자로 유명하다. 무료 참여. /김미은기자 mekim@



종교적 철학적 사유로 ‘죽음’의 문제를 천착해왔던 작가 박상룡이 이날 초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77세.

13일 문단에 따르면 작가는 이날 캐나다에서 타계했다. 박 작가는 1969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현지에서 보내며 작품활동을 해왔다.

1940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난 박상룡은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다. 이후 1963년 ‘아겔다마’가 사상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박상룡을 널리 각인시킨 ‘죽음의 한 연구’는 그의 문학의 정수를 담은 대표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